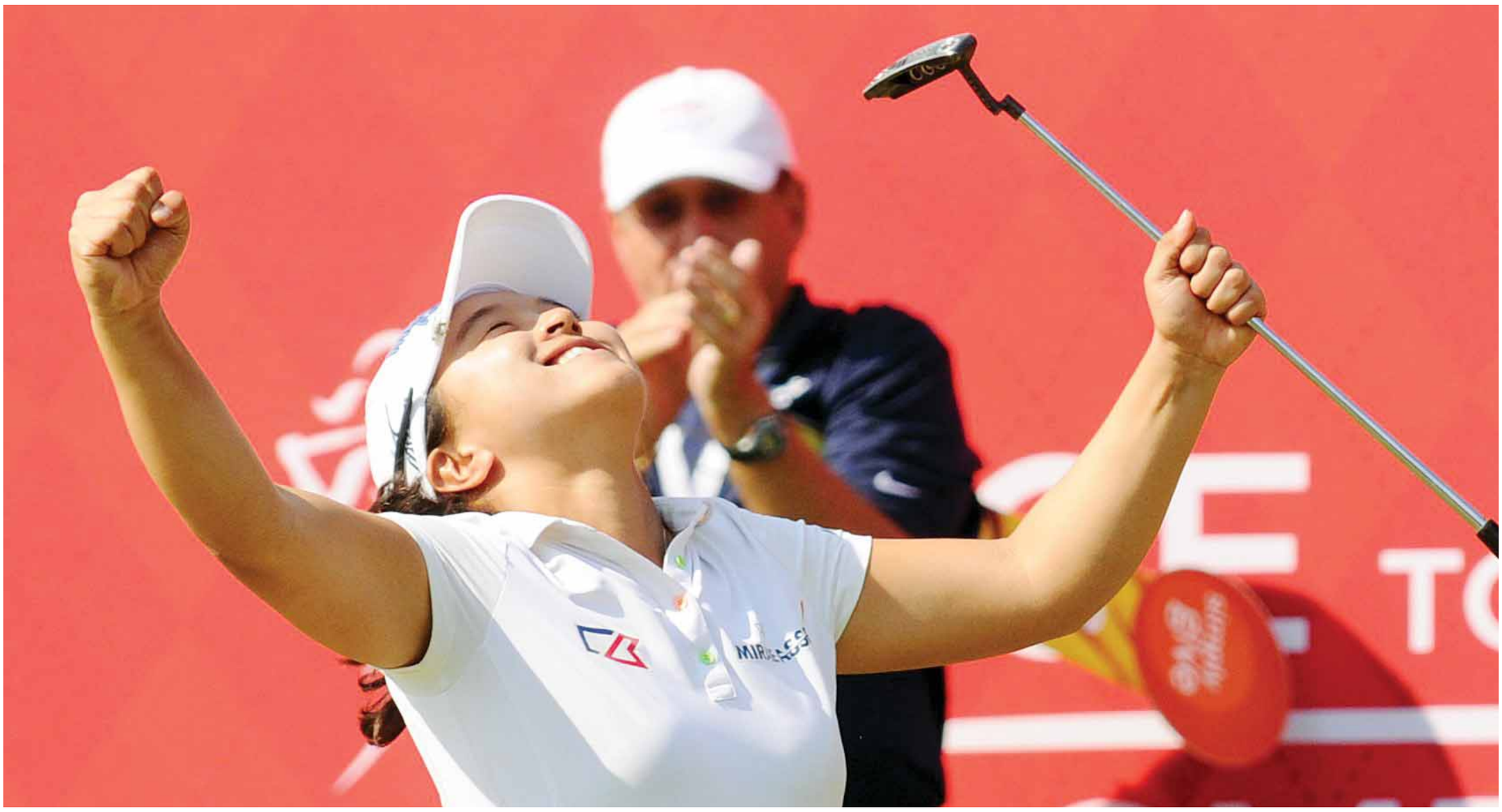
‘연장의 여왕’ 홀컵 1.5m ‘환상의 세컨샷’



김세영이 20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대회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영 LPGA 마이어 클래식 우승…시즌 2승

18번홀서 40홀만에 뼈아픈 보기…연장 버디로 우승

연장 우승만 세번…세계랭킹 5위로 리우올림픽 예약

영암출신 김세영(23·미래에셋)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0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컨트리클럽(파71·641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18번 홀(파4)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보기에 그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월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에 이어 시즌 2승, 투어 통산 5승째를 거뒀다. 우승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항상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 종종 역전 드라마를 연출, ‘빨간 바지’라는 애칭이 있는 김세영은 이날도 ‘빨간 바지의 마법’을 발휘했다.

전날 3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3위였던 김세영은 특유의 장타를 앞세워 5번과 8번, 11번 등 파5 홀에서 착실히 1타씩 줄이며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이후 14번 홀(파3)에서는 약 5m가 넘는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다.

시간다에게 1타 앞선 단독 선두를 유지한 김세영은 17번 홀(파4)에서 약 2.5m 파 퍼트에 성공,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보기가 나왔다. 티샷이 왼쪽으로 밀렸고 두 번째 샷도 러프로 향하는 등 그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어수선했다. 결국 약 5m 거리의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시간다와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마쳤다. 2라운드 13번 홀 보기 이후 40개 홀 연속 보기 없는 플레이를 벌이다가 나온 뼈아픈 보기였다.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지만 연장에 강한 김세영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연장

첫 홀에서 124야드를 남기고 시도한 두 번째 샷을 홀 1.5m 거리에 붙여 승부를 갈랐다. 반면 시간다는 두 번째 샷이 그린을 훌쩍 넘겼고 그린 밖에서 시도한 칩샷도 홀에서 3m이상 떨어져 L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김세영은 LPGA 투어 연장전 통산 전적을 3전 전승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5승 가운데 3승을 연장에서 일궈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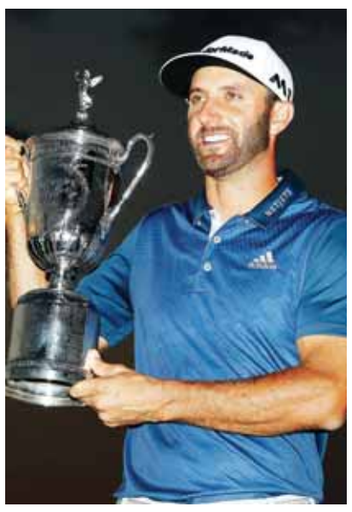
이 대회 전까지 세계 랭킹 5위로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에 이어 한국 선수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지킨 김세영은 이날 우승으로 8월 리우 올림픽 진출을 사실상 ‘예약’했다.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대회 우승은 올해 5월 초 텍사스 슛아웃의 신지은(24·한화) 이후 약 1개월18일 만이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17개 대회에서 6승을 합작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노무라 하루(일본) 등 한국계 선수들의 승수까지 더하면 11승이 된다.

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15언더파 269타,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가 렉시 톰프슨(미국)과 함께 14언더파 270타로 공동 4위,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은 13언더파 271타로 단독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존슨, US오픈 우승…생애 첫 메이저 제패



더스틴 존슨(미국)이 마침내 메이저대회 우승컵까지 들어 올렸다.

존슨은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 컨트리클럽(파70·7219야드)에서 끝난 메이저대회 제116회 US오픈에서 최종합계 4언더파 276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2007년 프로 데뷔한 존슨의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이전까지 그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9승을 거뒀다.

1984년 6월 2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존슨은 32번째 생일을 이 우승으로 자축했다. 우승을 확정한 18번홀에서 존슨은 17개월 된 아들 테이텀을 번쩍 들어 안았다. 그 옆에서는 약혼녀 폴리나 그레츠키가 미소를 머금고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존슨은 330야드 이상을 가볍게 넘기는 장타자로 유명하다.

2008년 터닝스톤 리조트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올린 이후로 매년 1~2승을 추가하며 세계적인 골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3년 월드골프챔피언십-HSBC 챔피언스 우승으로 8승을 거두고, 같은 해 7월 캐나다 오픈 출전을 끝으로 돌연 약 1년간 투어 활동을 중단해 각종 의혹을 받았다. 존슨은 코카인 복용설은 공식 부인했으나, 금지약물 설은 꾸준히 그를 따라다녔다. /연합뉴스

KIA, 주초 롯데전-주말 NC전

잇는다 잇는다

시즌 5승1패 롯데와 홈경기 6경기 11홈런·55득점 화력 임준혁 롯데 악연 끊기 도전

‘천적’ NC에 싹쓸이패 수모 팀 평균자책점 8.39로 껑충 신종길·이범호 등 활약 기대

좋은 기억은 살리고, 나쁜 기억은 지우고.

‘호랑이 군단’이 지난 주말 LG와의 원정경기에서 모처럼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돌아왔다. 헥터가 세 경기 연속 부족한 피칭을 했지만 양현종과 지크가 승리투수가 되어 광주로 돌아왔다.

새로운 한 주 ‘극과 극’의 상대가 KIA를 기다리고 있다. KIA는 주중 안방에서 롯데와 경기를 치른다. 주말에는 마산으로 건너가 NC를 상대한다. 불 같은 공격력에 웃고 우는 두 팀이다.

올 시즌 KIA는 롯데를 상대로 5승1패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우위에 서있다. 승리의 중심에는 뜨거운 방망이가 있다. 롯데와 벌인 6경기에서 KIA는 무려 0.350의 팀타율을 기록했다. 11개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팀 장타율은 0.570에 이른다. 29개의 볼넷도 골라내면서 출루율은 0.426. 55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당 평균 득점은 9.2점에 이른다. 롯데와의 유쾌한 기억을 살려 시원한 공세를 펼쳐야 하는 KIA의 타자들.

하지만 마운드 스타트를 끊는 임준혁에게는 지워야 할 기억이 있다. 임준혁은 지난해 롯데와의 경기에 4차례 나와 1승 1패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8.10을 찍는 등 내용이 좋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롯데전 악몽을 끊지 못했다.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4월22일 롯데원정에서 임준혁은 2.1이닝 4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경기 도중 최준석의 타구에 종아리를 맞으면서 마운드를 내려왔고,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있어야 했다.

롯데와의 악연을 끊어야 하는 임준혁, 팀은 NC전 연패를 끊어야 한다.

마산에서 치른 N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KIA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면서 1패 뒤 1승을 기록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안방에서 다시 만난 NC에게 싹쓸이 3연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전적은 1승4패가 됐다. NC의 뜨거운 공격에 마운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5경기에서 뽑아낸 탈삼진은 27개에 그쳤지만 37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8개의 홈런 포함 64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43명의 주자에게 안방을 허용했다. 올 시즌 4.97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NC를 상대로 한 팀 평균자책점은 8.39까지 치솟는다.

■ 2016 KBO리그 팀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47	1	18	0.723	0.0
2	NC	41	1	19	0.683	3.5
3	넥센	34	1	30	0.531	12.5
4	SK	32	0	34	0.485	15.5
5	LG	28	1	32	0.467	16.5
6	롯데	29	0	36	0.446	18.0
7	삼성	29	0	37	0.439	18.5
8	KIA	26	1	36	0.419	19.5
9	kt	26	2	37	0.413	20.0
10	한화	25	1	38	0.397	21.0

임준혁의 복귀를 시작으로 한승혁·심동섭도 불펜으로 돌아오면서 마운드의 재편이 이뤄진 점이 반갑다. 타석에서는 신종길의 가세가 반갑다. 지난 5월4일 왼쪽 종아리 사구 후유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그는 지난 16일 두산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신종길은 복귀 후 세 경기에서 9타수 6안타 2볼넷 1사사구를 기록하면서 김호령과 함께 막강 테이블 세터진을 구축했다.

이범호의 6월 기세도 심상치 않다. 16경기에서 0.328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범호는 7개의 홈런으로 16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주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이범호는 800득점과 900타점을 앞두고 있다. 솔로포 하나면 동시에 그의 800득점과 900타점이 완성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